

말레이시아 세팁 F1그랑프리 참가기



F1그랑프리 2라운드 결승이 펼쳐진 지난 5일, 말레이시아 세팁 경주장에서 스타트라인에 선 F1머신들이 굉음과 함께 타이어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급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속 350km...공기 찢는 굉음에 가슴이 뱅

지난 5일, F1그랑프리 2라운드 결승전이 열린 말레이시아 세팁(Sepang) 서킷(경주장).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경주장과 스탠드(관중석)는 날카로운 엔진폭발음과 긴장감,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랜드스탠드에 앉아있으려니 F1머신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날카로운 엔진폭발음이 전신을 압박해온다.

경주 시작과 함께 출발선을 박한 F1머신 20대가 시속 350km의 무서운 속도로 대기를 가르다. 공기가 찢어지면서 발생한 충격과 파동이 진동시킨다. 멀리 600여m가량 떨어진 트랙에서 질주하던 F1머신이 코너를 돌며 시야에서 사라지는가 했더니 홀연히 바로 눈앞 트랙으로 들어선다. 카메라의 초점도 미처 맞추지 못할 만큼,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다.

빨강과 노랑과 파란 원색의 F1머신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번개처럼 눈 앞을 스쳐간다. 멀리 오른쪽에서 다가올 땐 목격했던 엔진 폭발음은 눈 앞에서 고음으로 변했다가 아슬아슬 아슬아슬을 남기고 왼쪽으로 사라져간다. 처음 경기장에 들어설 땐 고문으로만 여겨졌던 엔진음이 슬그머니 쾌감으로 변해간다. 콧고막을 찢어내는 듯

5.543km 서킷 31바퀴 돌아...2시간 몰아지정 대회 3일간 세계 각국 관람객 몰려 전국축제

했던 F1머신의 날카로운 폭발음이 온몸으로 슬금슬금 짊어들이어 오더니, 나중엔 막힌 가슴이 뱅 뱅 뿜는 듯한 상쾌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경주장을 가득 채운 10만여 관중은 F1머신이 어서 빨리 눈앞을 지나가기를, 그리고 고음의 엔진 폭발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기다리며 2시간여 동안 가슴 졸이는 몰아지정에 빠져들었다.

2009년 F1(포뮬러원)국제자동차대회 2라운드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말레이시아 세팁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3일 자동차가 스쳐갈 때마다 벌떡 일어나 박수와 함께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세팁 서킷의 트랙은 5.543km로, 급격한 코너가 많아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F1머신들은 직선 주로를 최고 시속 330km로 질주

하며 트랙 한 바퀴를 1분35~1분40초 사이에 주파했다. 페라리와 BMW, 벤츠 등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선 영국의 쥘스 버튼(브라운GP팀)이 호주 멜버른 대회에 이어 2라운드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원래는 서킷을 56바퀴 돌아야 하지만 장비가 쏟아지는 등 악천후로 인해 31바퀴만 도는 것으로 승부가 마무리됐다.

세팁 경주장에서 만난 자스민(42·쿠알라룸푸르)씨는 "F1대회가 열리면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에서 F1대회가 열리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도 성공적으로 F1대회를 개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인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F1대회를 찾은 마이클(29)씨는 "F1대회는 속도가 빨라 스피드가 만점인데, 이번 대회를 보기 위해 8일간 휴가를 냈다"며 "한국의 가을날씨는 환상적이라고 들었다. 내년엔 경기가 열린다면 꼭 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

“F1지원법 이달중 제정 기대 경주장 건설 기한내 마무리”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코리아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을 이끌어가는 총 책임자다. 영암에 들어서는 F1경주장 건설은 물론 F1지원법 제정과 자금조달, 대정부 설득, 국내외 홍보에 이르기까지 F1과 관련된 모든 대·소사를 주관한다. 윤 단장은 12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달 말까지는 F1지원법이 제정되고, 자금조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자신했다. 또 2010년으로 예정된 F1대회의 성공적 개최도 확신했다. 다음은 윤 단장과 의 일문일답.



-F1지원법 제정 전망은. ▲지난 8일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열자고 합의했으며, 늦어도 16일까지는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F1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달 중엔 지원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1경주장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는. ▲F1주주사인 농협과 신한은행이 지난 10일 F1경주장 건축 기공식에 참가, 오는 16일까지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원칙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는데 합의했다. PF문제만 해결되면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F1경주장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0년 6월까지 마무리되고, 이어 10월로 예정된 F1코리아 그랑프리 개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코리아F1의 성공가능성을 전망한다면. ▲한국은 또 다른 F1대회 개최국인 말레이시아나 중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지리적, 문화적으로 훨씬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덩치도 출지도 않은 기후조건, 90만 명이 넘는 자동차 마니아, 뛰어난 접근성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 풍부한 볼거리 등이 그것이다. F1대회를 관광·문화와 접목시킨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인 쌍둥이 빌딩에 마련된 F1호보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F1머신을 살펴보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 (National Law & Economics). It features a large table with columns for '서울' (Seoul), '경기' (Gyeonggi), '광주' (Gwangju), and '전남' (Jeollanam), listing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area, price, and location.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621351-8240 and 010-7203-1100, and the name of the agent, Kim Heung-sook.